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이인식 지음



동물의 곱격을 본떠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설계한 ‘밀워키미술박물관’.

21세기 발전 해법은 ‘자연중심 기술’

길이가 0.5 센티미터에 불과하고, 지능은 밀바다이며 시력도 거의 없다. 하지만 이들은 협력해 진흙으로 벽을 만들고 굴을 뚫어 거대한 구조물을 쌓아올린다. 흰개미 이야기다.

전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도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흰개미 문덕은 환경친화적 건축을 추구하는 미국 피어스를 자극했다. 그가 흰개미 문덕에 영감을 얻어 짐바브웨에 건립한 이스트케이프 센터는 무더운 아프리카 날씨에 냉난방 장치 없이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한다. 전기로 냉난방을 유지하는 건물에 견주어 에너지 사용량은 10%에 불과하다.

가늘고 연약하지만 강력한 거미줄은 어떤가. 튼튼한 방탄복의 소재가 됐다. 바닷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어의 피부 구조를 활용한 전신 수영복은 수영 선수들에게 기적을 선사했다.

‘자연은 위대한 발명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인식(지식융합연구소장)씨가 펴낸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는 38억년을 이어온 자연과 생물의

지혜가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생물체로부터 영감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물영감’과 생물을 본뜨는 기술인 ‘생물모방’은 21세기 초부터 각광을 받았다. 자연 전체가 연구대상이다보니 생화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집단 지능, 재료공학, 신경공학, 건축학 에너지 등 활용 분야도 다양하다.

대한민국 과학 칼럼니스트 1호로 꼽히는 이씨는 ‘생물영감’과 ‘생물모방’을 아우르는 용어인 ‘자연중심 기술’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자연중심 기술은 생태적 풍요와 경제적 번영을 함께 이루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해법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자연의 지혜를 빌려 창조한 역사적 발명품을 소개한다. 박쥐의 생태를 면밀히 분석해 얻어낸 초음파 기술은 현재 의료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명 ‘짙짙이’로 불리는 벨크로는 도꼬마리 씨앗에 수없이 달린 갈고리를 본떠서 만든 것으로 생물을

본떠 발명한 것들 중 장 많이 팔려 생물모방의 상징이 되었다.

2부 ‘청색 기술이 희망이다’는 전복 껍데기에서 영감을 얻은 장갑차, 흑동고래의 지느러미를 연구해 활용한 풍력 발전, 도마뱀 불이와 호흡의 생체를 관찰해 만들어진 접착제, 거미줄가사리에서 따온 광통신 기술 등 자연을 본 떠 만든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

책은 또 로봇공학 분야에서 사람, 동물, 식물, 박테리아를 모방하는 동향을 소개하며 인공 장기, 신경보철 등 인체의 부품을 교체·교환하는 기술들도 소개한다.

그밖에 거미줄을 활용한 대형 건조물과 동물을 본뜬 건물, 복극곰과 펭귄이 알려주는 냉난방 시설 등 자연에서 배우는 건축 등 재미있는 사례들을 만날 수 있다.

흥미로운 소재를 다룬 이 책은 무엇보다 쉽게 읽히고 시각 자료도 풍부하다.

〈김영사·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순태 소설에 드러나 있는 한과 작품세계

‘해한의 세계-문순태 문학연구’

박성천 지음



남도문화기행 웹사이트 구축 일환으로 실시된 ‘작가와 함께 떠나는 문학기행’ 대담자로 동행하며 이뤄졌다. 은사이기도 한 노소설가와 작품의 배경이 됐던 곳을 직접 찾고 나서 이루어진 대담은 전문기적 시간이 녹아 있어 깊이 있으면서도 소소한 일상까지 아우르고 있어 애정이 엿보인다.

‘타오르는 강’의 작가 문순태의 작품 세계를 조망한 책이 나왔다.

소설가 박성천씨가 펴낸 ‘해한의 세계-문순태 문학연구’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좀 더 쉽게 풀어쓰고 문순태와의 대담을 실은 책이다.

박씨가 문순태의 소설을 분석한 큰 틀은 해한(解恨)과 초극의 참세상이다. 덧붙여 ‘가장 낮게 엮드린 채 숨죽이며 효행했던 이들에 대한 무한한 연민과 증인’을 문순태 소설의 본령으로 봤다. ‘징소리’나 ‘타오르는 강’, ‘그들의 새벽’ 등 대표작들이 내포하는 있는 정서다.

책 말미에 실린 작가와의 인터뷰는 순천대가 기획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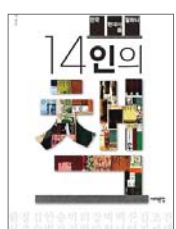
광주일보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00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무지기의 날개’가 당선되며 등단한 박씨는 전남대 영문과를 거쳐 국문과 박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남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펴낸 책으로 소설 창작집 ‘메스를 드는 시간’, 기행집 ‘장같은 세상은 온다’가 있다. 〈박문사·2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간의 삶을 통해 역사를 들여다 본다

‘14인의 책’

윤무한 지음



그는 함석헌 선생의 삶과 역사관은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 고스란히 살아 있고 장준하는 ‘사상계’를 통해, 백낙청은 ‘창작과 비평’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낸다.

인간의 삶과 책은 ‘역사’를 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적극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인생과 그들이 펴낸 책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개인사(史)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보인다.

언론인 출신 윤무한의 새 책 ‘14인의 책-한국현대사를 말한다’는 언론인, 문인, 종교인, 학자 등 굵직한 족적을 남겼던 14명의 삶과 책을 통해 한국 역사를 들여다본 책이다.

역사 전공자가 아니라도 저자는 책 속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펴낸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삶을 정리해 나갔다.

종교인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역사 분야의 한 획을

에 대해 거침 없는 발언들을 쏟아냈던 ‘풀’의 시인 김수영과 김지하,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의 조세희는 스티디셀러가 된 작품들을 통해 오롯이 복원된다.

책은 그밖에 한국 언론의 산증인 송진호, ‘민중경제론’을 주창했던 경제학자 박헌재, 민중신화학자 안병무 등의 삶과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저자의 유고집이다. 〈서해문집·1만49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단독주택 열풍... 집짓기의 모든 것

‘집짓기 바이블’

조남호 외 지음



내가 살 집을 직접 지어보는 건 어렵다.

건축가 조남호씨 등 7명이 함께 펴낸 ‘집짓기 바이블’은 요즘 트렌드 중 하나는 단독주택 열풍에 부응하는 책이다.

건축주와 건축가·시공자 등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7명이 나눈 13편의 솔직한 대담의 기록을 담은 이 책은 집에 관한 고민에서 준공까지 시시콜콜한 정보들을 모두 담고 있다.

‘집짓기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타이틀로 구성된 1부에서는 집이

갖는 의미부터 시작해, 설계, 구체적인 인테리어 정보, 준공과 사용 승인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서로의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2부 ‘들려주고 싶은 나의 집 이야기’는 서울 광장동의 오래된 가옥을 단독주택으로 신축한 건축주, 충북 청원 파노라마 하우스의 ‘시공일기’를 공개한 건축주, 경기 용인에 땅콩 집을 직접 짓은 건축주 등 3명의 생생한 정보가 실려 있다.

〈마티·2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희망·공감

‘청춘 콘서트 2.0’

법륜스님 외 지음



2011년 안철수·박경철의 ‘청춘 콘서트’는 청년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법륜스님, 방송인 김제동, 배우 김여진이 함께 참여한 ‘청춘 콘서트 2.0’ 역시 청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그 내용들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행복 청춘’이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이끈 법륜스님은 청년들의 고민을 다스리고 행복을 여는 방법을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풀어낸다.

김제동이 진행한 ‘공감청춘’은 방

송작가 노회경, 기자 오연호와 주진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우석훈 등 대 회 멘토를 초대해 청년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됐다.

‘행동 청춘’ 김여진은 비정규직, 청년들의 등록금, 취업, 정적 참여 등 현실 문제를 주제로 나눠 전문가 패널과 토론을 벌이고 청년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 후 직접 ‘행동’에 옮기는 결의를 다졌다.

〈윌드 김영사·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변 일상을 그대로... 소박한 이야기들

‘빌뱅이 언덕’

권정생 지음



‘몽실 언니’와 ‘강아지 똥’ 등으로 널리 알려진 동화작가 권정생(1937~2007) 작고 5주기를 맞아 산문집 ‘빌뱅이 언덕’이 출간됐다.

등단 이후 197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발표한 주요 산문들을 새롭게 찾아내고, 절판 도서에 실린 산문 여러 편을 가려 뽑아 엮었다. 산문집에는 작가가 직접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오물덩이처럼 덩굴면서’ 등 자전적 산문 4편과 주변의 일상을 통해 문명과 인간성을 성찰한 산문 39편을 비롯해 단행본에 실리지 않은 시 7편과 동화 1편(30억의 잔치)이 수록됐다.

경북 안동 일찍만 한 마을교회 종지기로 일하면서 빌뱅산 아래 번지도 없는 ‘빌뱅이 언덕’ 두 칸 오두막

집에서 살며 ‘두 번의 전쟁이 안겨준 가난과 병든 몸으로 철저히 외톨이가 됐던’ 작가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산문집 첫머리에 실린 ‘나의 동화 동화를 썼는지도 모른다’고 토로한다.

작가는 자신이 살던 ‘빌뱅이 언덕’을 “...필레몽굴에 하얀꽃도/ 딱갈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도/하늘이 좋아라/ 해질녘이면 더욱 좋아라”고 동시로 묘사했다.

〈참바·1만3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신간

▲**괜찮다, 우리는 꽃필 수 있다**=소설 ‘미실’의 저자 김별아가 주말 야간 산행을 통해 백주대간 남한 구간을 완주하며 느낀 이야기를 담은 공감과 치유의 산행 에세이다. 1차부터 16차까지 산행기록인 ‘이 또한 지나가리라’에 이어 17차부터 39차까지의 여정을 담은 이 책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동반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열어가는 기록이자 도종환·안도현·곽재구·이원규 등의 시와 함께 한 문학 에세이기도 하다.

〈해냄·1만3800원〉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교수가 쓴 책으로 ‘가족과 결혼으로 본 근대 한국의 풍경’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자유연애와 강제결혼 가부장제와 현묘양처, 이혼, 가족의 대안 형태 등을 둘러싼 20세기 초 한국의 풍경들을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개인 생애사의 순차적 전개를 염두에 두고 결혼, 가족, 이혼, 대안과 비전 4파트로 책을 구성했다.

〈푸른역사·2만8000원〉

▲**미국 총 미스터리**=세계적인 추리 소설 작가 엘리리 퀴의 국명 시리즈 중 한권이다. 뉴욕 한복판에 지어진 스포츠 전당 ‘몰로세움’에서 세계 최대의 로데오쇼가 벌어지고 서부영화의 영웅이었던 벡혼은 이 쇼를 계기로 재기를 준비중이다. 2만명의 관객이 들어찬 가운데 쇼가 시작되지만 선두를 달리던 벡혼이 갑자기 말에서 떨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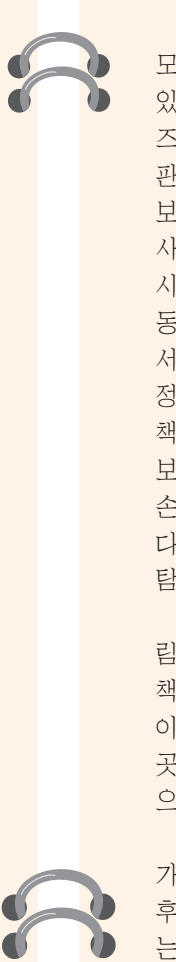


고 뒤따르던 수십 마리의 말발굽에 짓밟힌다. 현장에서 쇼를 관람하던 엘리리 퀴와 퀴 경감은 사건 속으로 뛰어들고 벡혼이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검은숲·1만3000원〉

▲**연애**=소신있는 발언으로 뉴스의 중심 인물인 배우 김여진의 에세이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과의 만남, 한진중공업 크레인 위에 선 김진숙과의 만남과 희망버스 부터 시작해 남편과의 연애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땀비고 날 울린 김진숙과 몇번이고 날 찾아준 김진민(남편)에게’라는 현사가 붙어 있다. 〈클·1만3000원〉

▲**동아머리**=‘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했던 아산 바람스님이 펴낸 행복한 명상 메뉴얼이다. 삶에서의 행복이나 깨달음을 위해 명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인 명상의 방법을 제시하고 불교명상을 통해 도달되는 깊은 정신적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공리·2만5000원〉

▲**아름다운 우리 종이 한지**=자연염색, 염료, 먹 등 우리 고유 미술 재료를 꾸준히 연구해온 이승철 동덕여대 미술대학 교수가 20년간 모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전통 한지 태동기인 삼국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지의 역사를 체계화하고, 제작 방법과 현대적 활용방안까지 300여장의 사진과 함께 설명했다. 한지 11종을 샘플로 수록했으며 영문판도 동시 출간됐다. 〈3인2000원〉



▲**삐뽀 동물원**=동물의 모습을 뼈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펴낸 ‘삐뽀’ 시리즈로, 열목랄·하마·사자·판다·기린 등 동물원에서 보던 친근한 동물들을 뼈 사진으로 관찰할 수도. 시원하게 펼쳐진 다양한 동물들의 뼈 사진을 보면서, 동물의 특징과 생태 정보를 재미있게 배우는 책이다. 커다란 다리를 보고 코끼리를 추측하고, 손가락뼈를 보고 새와 다른 박쥐를 상상하는 등 아이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한다. 〈시공주니어·9000원〉

▲**원공**=지난 2009년 말에 열린 제2회 CJ그림책 축제에서 주목을 받았던 원공은 ‘CJ그림책상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50인’에 선정된 작품이다. 동물원에 갇힌 원공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을 글자없이 그림만으로 그려 주먹을 받고 있다. 〈아이세움·1만원〉

▲**요술쟁이 훌라후프**=어린 여자아이 조이가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주운 요술쟁이 훌라후프를 신기하고 흥미로운 요술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조이는 명망이 친구 빙스가 훌

라후프를 통과할 때마다 다른 동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요술의 매력에 흠뻑 빠진다. 하지만 조이가 귀여운 동물이 아닌 무서운 악어로 변하자 크게 놀라면서, 요술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도서출판 아이맘·1만원〉

▲**명탐견 오드리**=‘봉봉초콜릿의 비밀’, ‘명탐정 설총주, 어둠 속 목소리를 찾아라’ 등 어린이용 추리소설을 써온 작가 정 은숙의 신작이다. 이번 작품의 주인공은 미모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한 개 ‘오드리’로 주인공 집 고서화 도난사건, 이웃집 다이아몬드 실종 사건, 동네 애완동물 습격사건을 해결해나간다. 〈버림의 아이들·7800원〉

▲**구글 어스 세계여행**=위성 사진 프로그램인 구글 어스와 그림책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식의 놀이책으로 80권이 넘는 논픽션을 펴낸 클라이브 기포드가 글을 썼다. 인터넷에서 구글 어스를 직접 다운 받아 뉴욕 브로드웨이, 콜레세움 등 세계 유명 도시와 유적지를 돌아보며 정보를 알아가는 책이다. 〈국민서관·1만3000원〉

어린이 책꽂이